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가을만 이제 끝 무렵에 접어들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이 천지를 현란하게 물들이고 노란 은행잎이 아스팔트의 색깔을 바꿔놓고 있다. 그러나 도시인들의 삶은 이 찬란한 가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 보라, 아침 출근시간의 시내버스 안 승객들은 반 이상이 졸고 있다. 이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희망찬 아침이 아니라, 또다시 고된 일상이 기다리는 숨막히는 아침이다. 먹고 살기 위한 힘겨운 고투가 시작되는 아침인 것이다.

때마침 가을밤, 그대 그리워시(懷君 屬秋夜) 서늘한 하늘아래 시 읊으며 거니다오 (徵夢旅涼天) 빈 산, 술방울 떨어지는 소리에(空山松 子落) 깊이 사는 그대 또한 잠 못 이루겠지 유?(幽人應未眠)

이 찬란한 가을에

도 좋고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도 좋다. 그러면 세속에 시달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옛사람들은 벼루에 먹을 갈아서 붓으로 썼을 것이다. 먹을 쓰는 동안은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즐거움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붓이 아닌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짚어서 보내진 문자, 컴퓨터로 작성한 글에는 기계

이 가을밤에 술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으며 잠 못 이루리라고 상상한다. '그도 응당 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리라'. 이러한 그리움을 20자의 시로 써서 보낸 것이다. 아무런 수식도 기교도 없는 담백한 시이지만 두 사람의 우정이 짙게 배어있는 시이다. 그래서 이 시가 그토록 후인들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로 누구나 한 사람쯤은 그리운 대상이 있을 것이다. 이 가을엔 그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자. 헤어진 첫사랑의 연인도 좋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의 냄새가 묻어있게 마련이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 헤어진 첫사랑의 연인도 좋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의 냄새가 묻어있게 마련이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 헤어진 첫사랑의 연인도 좋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의 냄새가 묻어있게 마련이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 헤어진 첫사랑의 연인도 좋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예웅



전통 유기농법으로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은 문화·역사적 보전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염전창고 주변에 부서지고 깨진 석면슬레이트 조각들이 널려있고 시료의 석면분석결과 최고 25%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일부 소금제품에서도 미량이지만 석면이 검출됐다는 시민환경연구소의 현장조사결과를 접한 많은 시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천일염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신안과 영광지역

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부처의 석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과장급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말단 주무관과 사무관들을 번갈아 가며 참석시키고, 일부 개발부처는 아예 참석자를 보내지도 않는다.

탁상행정에 위협 받는 국민 밥상

이 있는 광주·전남권의 주민들은 걱정이다. 최근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얼마 전 또 염전에서 소금을 구입했는데 안전하겠습니까?". "석면에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문의를 하고 있다. 소금업체 관계자는 "소금에 석면이 있는지 검사를 하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고 물었고, 한 유망식품회사 관계자는 "스낵제품에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소금 제품이 어디 있느냐?"며 제품에 사용한 소금이 안전한지 물어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가 지난 4월 베이비파우더 석면탐색 사건을 만나자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모여 이전에 발표한 석면종합대책을 대충 보완하여 임시방편식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또 다른 기회는 환경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전국농가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다. 모두 981호의 농가주택의 82%가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67%가 30년 이상 노후화하여 석면노출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석면슬레이트 지붕 아래 토양시료의 3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기고

송관용



신종 플루는 일반 감기에 비해 증상이 훨씬 격렬하며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또 계속되는 신종 플루 사망자들에 대해 공포감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심한 감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만큼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제하는 등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제된 항량이 높은 붉은색의 양파 껍데기를 차 마시듯 달여서 마시면 혈압강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고추 역시 베타카로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 계통의 감염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질병의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 특히 비타민C 함량도 골다공 2~3배 높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신진 대사를 증진시키고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종 플루엔 김치·된장이 최고

목 중요하다. 즉,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감염돼 체내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잡곡, 녹황색 채소, 버섯 등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발효된 전통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각종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의 연구결과로 김치가 저병원성 AI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실험쥐에 김치 추출물을 3주간 투여하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김치를 다량 섭취한 쥐는 100%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쥐는 73%의 생존율을 보여 김치의 효능을 입증했다.

신종 플루 역시 김치로 예방할 수 있으며, 신종 플루는 SI와 달리 고병원성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형태가 유사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신종 플루 감염자의 80%가 김치를 잘 먹지 않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데다 국내 감염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김치의 효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시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타당성 검증 있어야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지역산업과 시민 편의 측면에서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폐쇄된 국제선 재취항까지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연내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모양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문제에 대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지역산업과 시민 편의 측면에서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폐쇄된 국제선 재취항까지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연내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모양새다.

캐리어, 결국 광주 떠나는 수순 났나

광주 하남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캐리어(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회사 측이 최근 노사합의도 없이 대규모 근로자 해고를 통보한 뒤 1주일 간 공장을 휴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고, 이를 두고 노조측은 회사 측이 결국 공장을 닫으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캐리어는 지난 2006년 373명을 구조조정할 때 이어 이번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절반인 28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나섰다. 고비용 체질원가 구조를 개선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천명이던 종업원 수를 5년도 채 안 돼 4분의 1수준으로 감축하고 그동안 살비투자도 중단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주장대로 광주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캐리어가 광주를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600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92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그렇지만아도 제조업이 취약해 일자리 부족한 광주경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사는 캐리어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탄탄하고 건실한 지역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내세우며 각기 제 갈 길을 간다면 공멸할 뿐이다. 이럴 때 일수록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특히 사측은 이익만 취하고 경영환경이 바뀌자 빠져나간다는 '먹튀기업'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도 캐리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 노사가 윈윈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블영화가 마침내 수능문제까지 등장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15번 문제는 국내에서만 소비되던 마블영화의 해외 수요가 최근 급증한 것을 다뤘다. 평소 마블 영화를 접할 기회가 빈번하지 않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또 한국지리 13번 문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경제지리 5번 문항은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관련된 것이다. 모두 최근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던 소재들이다. 서울 한 유명 학원

은 수시 눈송고사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시사문제 20개를 골랐다. 여기에는 ▲인기그룹 팀 탈퇴 사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신종 플루 확산과 대책 ▲존슨 사 허용 ▲세종시 논란 등의 항목이 선정됐다. 국내의 시사문제와 관련된 것들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던 중요한 내용들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마블영화 문제를 풀려면?



성장기 청소년 '운동·식습관' 부모역할 중요

어른들의 생활방식이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이나 합기도 도장에 다니지 않는 한 중고생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한다. 그저 학교를 오가며 학원 다니고 공부만 할 뿐이다. 그러나 체력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때 2~3년 정도 맞배기로 태권도 학원 다니는 것 정도가 전부다. 거기다 식습관마저 좋지 않다. 식사를 마친 학생 대부분이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장 공부 급하다 4교시가 끝난 후 식사를 마친다

음 5·6교시에 배울 과목을 미리 예습하는 아이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아이들,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군것질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성장기에 운동이 부족하면 신체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심장, 호흡기, 신경계 발달에 지장이 오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 발육을 위해 운동을 시켜주는 것,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호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공공도서관 책 대여 후 제자리에 꽂아 놔야

아이의 독후감 숙제를 위해 지난 토요일 아이를 데리고 시내 도서관에 들렀다. 아이가 독후감을 써야 할 책의 목록을 검색해 보니 다행히 책이 아직 대출되지 않아 번호를 적어 서고로 향했다. 그런데 책이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 5권 중 겨우 2권을 찾아낸 후 도저히 더 찾기가 불가능해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책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정상이지만 책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고 아무 데나 뒤죽박죽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자

기가 책을 분류표에 의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물창고처럼 해야 하는 관이 아니라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일반 교양도서관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아이들이 많이 찾는 동화책, 인기가 있는 책과 각종 일간지나 기타 다른 정기 간행물들이 더하다고 한다. 책을 제자리에 아닌 곳에 마구 꽂아두면 그것을 찾아내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닐 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3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주국)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